



스위스 글램핑 플렉스.

물가, 숲속, 별밤 아래에서 낭만 럭셔리 숙박
캠핑 장비 없어도 좋은 스위스 캠핑장
알프스 한복판에서의 캠핑
텐트 밖으로 펼쳐지는 5성급 뷰
대중교통으로도 찾아갈 수 있는 캠핑장

캠핑이 유행이다. 스위스에서조차 장비를 직접 갖고 가지 않아도 되는 캠핑장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대부분의 TCS 라는 업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에는 심플한 텐트부터 럭셔리한 텐트까지 다양한 글램핑 숙소를 마련해 두고 있다. 글램핑은 여행 트렌드 그 이상으로 특별한 여행 스타일이다. 매력적인 스타일과 캠핑을 혼합하여 자연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방법이다. 여행자들은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원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세련된 분위기도 즐길 수 있다. 아래 소개하는 TCS 캠핑장은 전체가 글램핑 빌리지이거나, 일부 특별한 글램핑 옵션을 운영한다. 또는 호텔에서 호텔 부지에 글램핑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원하는 기준에 제일 잘 맞는 캠핑장을 찾아보자.

1. TCS 캠핑 부옥스 피어발트슈타터제(Buochs Vierwaldstättersee)

TCS 캠핑 부옥스 피어발트슈타터제는 2017년 완전히 업그레이드되었으며, 루체른(Luzern) 호수 바로 옆에 있어 몇 분 거리에 대단한 호수 풍경이 펼쳐진다. 이 캠핑장의 특별한 점은 캠핑장 그 자체로,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조성되어 다양한 식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개인적인 공간도 잘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텐트부터 비교 불가능한 루체른 호수의 전망을 선사하는 패밀리 포드 디럭스까지 다양한 옵션을 갖추고 있는 글램핑 빌리지도 지속적으로 단장되고 있다.

2. TCS 캠핑 그바트 투너제(Gwatt Thunersee)

캠핑장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 뷰는 끊임없는 매혹의 원천이 되어준다. 편 바람이 부는 날이면 4,000m 정상에 달을 듯한 기분이다. 유람선 여행을 하거나, 호수에서 수영을 하거나, 생기 넘치는 아래 선착장(Aarequai)을 따라 산책을 하거나, 호숫가에 앉아 낭만적인 피크닉을 즐기거나, 호수가 차분한 기쁨을 불러 넣어준다. 2020년에 새롭게 단장한 그바트 투너제 캠핑장에는 다양한 명물이 있다. 독특한 스위스튜브(SwissTubes) 외에도 화려한 산세의 풍경을 펼치는 호숫가 살레가 특히 돋보인다.

3. TCS 캠핑 루체른-호로우(Lucerne-Horw)

TCS 캠핑 루체른-호로우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루체른 호숫가에 있다. 루체른 도심 근교의 남북 고속도로 근처다. 이 지역에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무척 많은데, 그래서 하루가 금세 가는 기분이다. 예를 들면, 그 어느 곳에서 달 여행을 가거나, 세상에서 제일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를 타거나, 스위스 연방 탄생지까지 외륜 증기선을 타고 갈 수 있을까? 맞다, 바로 루체른에서다. 전체 캠핑장을 내려다보고 싶다면, 라이트하우스에 머물며 발코니에서 저 멀리까지 펼쳐진 뷰를 즐길 수 있다.

4. 패밀리캠핑 아렉(Familien camping Aaregg), 제블릭 빌라(Seeblick Villa), 브리엔츠(Brienzi)

사방으로 웅장한 산을 감고 있는 청록색의 브리엔츠(Brienzi) 호수와 그 위로 뿔어 나온 반도는 마치 영화 속에서 보던 장면을 옮겨놓은 듯하다. 새로 지은 살레 오두막 공원 내에는 방갈로, 캠핑장, 나무포드 등의 시설과 물가 바로 옆으로 다양한 공간이 있다. 호수의 뷰가 보이는 아레슈투베(Aarestube) 레스토랑, 슈퍼마켓, 바비큐 장, WiFi 등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다. 융프라우요흐(Jungfrau joch), 아레 계곡(Aare Gorge), 발렌베르그(Ballenberg) 야외 박물관, 무게슈투츠(Muggestutz), 그리고



로트호른(Rothorn) 철도가 가까이에 있다. 목가적이며, 가족친화적인 캠핑장으로, 호수 위로 돌출되어 있는 반도 위의 공원 같은 부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작은 만이 있는 수영장, 일광욕 잔디, 워터 트램펄린, 개별적으로 분리된 항구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놀이터, 체스 정원, 레스토랑, 상점, 어린이극장 등 기반 시설이 훌륭하다. 편안한 대여 숙소, 스칸디나비아식(Scandinavian) 오두막, 숙박용 오두막 등 숙박시설도 다양하다. 물가 바로 옆으로는 수많은 공간이 있어 필요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 높이를 낮게 만든 세면대 등 어린이에게 맞춘 매우 현대적인 세면 및 목욕탕 공간이 있어 아이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5. 피셔스 프리츠(Fischer's Fritz), 취리히(Zurich)

취리히 호숫가에 놓인 사파리 텐트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보다 더 로맨틱하고 별과 가까워질 수는 없다. 취리히 호반에 있는 캠핑장, 피셔스 프리츠에서다. 취리히의 호수 풍경이 펼쳐지는 너른 잔디밭에서 느릿느릿 한 한때를 보내기 좋은 곳이라 로컬들에게 인기다. 사파리 텐트는 세련되면서도 편안하게 단장되어 있다. 10 개의 텐트에는 나무 바닥, 편안한 더블 침대, 담요, 수건, 작은 야외 공간이 완비되어 있다. 이곳에는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는데, 바비큐 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캠핑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방문자들도 입장료만 내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바비큐뿐 아니라, 비치 발리볼, 스탠드 업 패들 서핑, 웨이크 보딩, 트램펄린, 카누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유료로 즐길 수 있다. 5 월부터 10 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6. 화이트포드 에코-럭셔리 호텔(Whitepod Eco-Luxury Hotel), 레 지에트(Le Giettes)

선구적인 컨셉트로 건축적 매력이 넘치는 하이테크 텐트인 "포드(pods)"는 나무로 된 플랫폼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해발 1,400m 고도의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웅장한 제네바 호수와 주변의 산의 모습을 방해 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포드에는 나무 장작을 때는 호화로운 난로를 비롯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시설이 빠짐없이 갖춰져 있다. 환경친화적인 리조트는 표지판이 설치된 25km의 트레일, 두 채의 살레 오두막, 레스토랑, 바, 핀란드식 사우나로 구성되어 있다. 마사지, 승마, 캐니-카트 등 수많은 액티비티를 현장에서 직접 선택해 즐길 수 있다.

7. 캄포펠리체 캠핑 빌리지(Campofelice Camping Village), 테네로(Tenero)

잘 알려진 특급 캠핑 사이트로, 마지오레(Maggiore) 호숫가에 있으며, 전용 해변과 자연보호 구역, 쇼핑 지역, 대중교통이 가까워 매우 편리하다. 최신 시설의 휴리데이 방갈로 50 채는 각각 다른 컨셉트로 꾸며져 있고, 나무 테라스가 딸려 있다. 넓은 부지 위에는 몇 개의 운동장, 카약, 테니스,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이 자리하고 있다. 정자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며,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8. TCS 캠핑 시옹(Sion)

풍부한 일조량, 따뜻한 바람, 특별한 분위기를 갖춘 캠핑장이 발레 지역의 주도인 시옹에 있다. 이 작은 마을은 남극의 매력, 전통과 현대의 유려한 조화, 발레(Valais) 지역의 계곡으로의 편리한 접근성, 알프스 산자락으로 인해 그 개성이 더욱 돋보인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캠핑장에는 수영할 수 있는 호수가 있고, 캠핑 및 글램핑족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해 준다. 서핑 캠프 같은 프로그램은 파도타기 족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낭만적인 숙소를 찾고 있다면, 별빛 가득한 너른 하늘 뷰를 선사하는 에어롯지(AirLodge)가 완벽한 선택이 되어준다.

자료 협조: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m